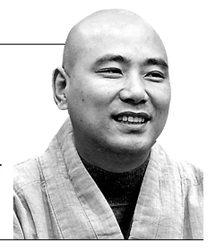
현불 논단

장기기증은 자비입니다



선업 스님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이사

'나는 장기기증을 희망합니다' 한 소방관 가슴에 새긴 타투
대중들 감동…기증 희망 늘어

자리이타 실천하는 대승불교는
장기기증을 보시바라밀로 해석

오계 중 첫째, 생명존중사상 연결
수계할 때 장기기증을 서약하고
'심전도 타투' 의미담아 연비하자

최근 어느 소방관의 가슴에 새겨진 문구가 인터넷 포털에서 화제다. 한 남성의 가슴에 새겨진 심전도 마크와 '한국 소방관', '나는 장기/조직 기증을 희망합니다' 라는 문구가 또렷한 사진. 과연 누가 이런 타투를 새긴 걸까? 타투의 주인공은 이미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마친 현직 소방관이고 그는 위험한 곳을 찾아다니는 '소방관' 이라는 직업 때문에 언제 어떤 위험한 일을 겪을지 몰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장기 기증자라는 것을 가능한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가슴에 이런 타투를 남긴 것이라고 한다. 이 사연이 알려진 이후 놀랍게도 장기 기증 서약자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하나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장기이식 비용을 장기 이식 수혜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한 표준약관을 만들어 장기 기증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는 뉴스도 눈에 띈다.

지금의 장기기증법은 장기 이식 · 적출에 드는 비용은 장기를 이식받는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장기일부 보험사가 장기 이식 관련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과 분쟁이 계속 발생하면서 장기기증의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앞으로 개정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장기기증 과정에 지출되는 각종 행정 처리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장기 이식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나는 이때 불교에서는 장기 기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자기의 성불만이 아니라 타인의 성불도 담아내는 자리이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대승불교에서는 바라밀의 첫 번째인 보시바라밀의 정신에 입각하여 장기기증도 자신의 신체 일부를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기증하는 나눔의 행위로 보고 있다.

특히 범부들이 유일하게 자신의 것으로 집착하는 육신의 일부를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를 〈금강경〉에 나오는 '머무는 바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 의 가장 바람직한 예의 하나로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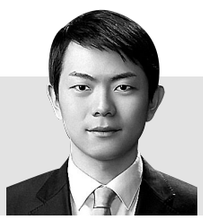
이런 불교 정신을 실천하는 '생명나눔운동본부' 에서는 '장기 이식 건수가 작년에 4372건으로 늘었지만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수가 2000년 5343명에서 작년에는 3만4187명으로 증가한 사실' 에 주목하고 생명을 나누는 장기기증 희망등록운동을 펼치고 있다.

유명 연예인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로 부터 자발적인 기증희망등록을 받고 있는데, 뇌사 · 사후에 본인이 기증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인 기증희망등록은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태국에서는 '싹얀' 이란 전통적인 문신을 행하고 있다. '싹(Sak)' 은 두드림 또는 문신을 의미하고 '얀(Yant)' 는 신성한 기하학적 디자인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어 얀트라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문신에는 불법승 삼보와 관련된 문구들이 등장하고 오계를 먼저 받은 후에 몸에 새길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수계를 받을 때 팔에 연비를 하고 있다. 오계를 지킬 것을 삼보 전에 약속하면서 그 맹세를 팔뚝에 새기는 것이다. 오계의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 존중 사상과 연결이 돼 있다.

앞으로는 수계를 받을 때 장기 기증 서약을 함께 하고 연비를 할 때 심전도를 마음의 상징으로 새기면 어떨까. 내 심장이 그치면 장기를 통해 타인의 심장을 뛰도록 하겠다는 맹세를 새기는 것이다. 소방관이 가슴에 새긴 타투의 의미를 본받아 모든 불자들이 장기기증 서약과 함께 연비하기를 기대해 본다.



기자칼럼

불광사 노동조합 창립에 부쳐

노덕현 취재부 기자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전법회관 지하 선운당에서는 불교계 첫 사찰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불광사 노동조합이 그 것이다.

불광사는 현재 창건주 권한이 있는 前회주 지홍스님(조계종 포교원장)과 일부 신도들과의 갈등이 불거진 사찰이다.

이날 노동조합 결성을 알린 재가종무원들은 신도들의 사찰 점거와 감시, 심지어 폭행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개별 사유를 떠나 불광사 종무원 노조의 탄생은 조계종 사찰에서 그동안 노동조합이 없었단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사찰에서 재가종무원은 보통 출가자로 구성되는 임기제의 교역직 종무원과 달리 장기적으로 종무행정을 이끌 행정력의 핵심이다. 장기적인 사찰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전문가로서 이들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특히 일반 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은 급여를 차치하고서라도 고용안정 부분에서 그렇다. 사찰에서는 그동안 인사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주지 스님 등 인사권을 지닌 사용자가 해고와 인사이동 등을 지시하면 노동자인 대부분의 재가종무원은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갑과 을로 평가하자면 이른바 슈퍼갑과 슈퍼을의 관계였다.

이런 역학구도에서 일부 공찰은 주지 스님 교체마다 종무원들이 대거 바뀌기도 했고, 종무원들이 인사권을 지닌 스님의 개인용무를 도맡아 하기도 했다.

신도와의 관계 또한 그렇다. 사찰에서 재가종무원들은 신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 있다. 여기에 작은 사찰의 경우 봉사자들이 종무행정에 참여해 신도와 종무원의 구분이 모호하기도 하다. 이런 관계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주장을 펴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자연스럽게 임금 인상이나 근무환경 협의 등도 사실상 비정규직 수준의 협상력을 지닐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재가종무원들도 직장인이며 생활인이다. '신분보장' '고용안정' 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사이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사회법에서도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조계종에도 종무원법이 있어 종법이 정하는 징계사유 외에는 65세까지로 재가종무원의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때로는 사찰에서 재가종무원의 부당한 처우 개선 요구는 신심의 부족으로 치부되곤 한다. 일반 기업과 달리 앞서 설명한 이유로 요구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단결권 행사까지 제약이 따른다. 여기에 사찰 종무원으로서 다른 직업으로의 이직 또한 어렵기 때문에 묵묵히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불교계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총무원장 불신임안에 이어 새 총무원장 선출까지 불교계 안팎에서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예산안 마련부터 각종 사업 집행까지 도맡아 하는 이들이 종무원들이다.

사찰에서 주지 교체와 안팎의 갈등에서도 신도들의 신행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종무원들이다. 종무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불교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종무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社說

'불신임' 정국, 빠른 안정 급선무

2018년 8월 16일. 이날은 한국불교 현대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으로 생각된다. 조계종 역사상 첫 불신임. 정확하게는 8월 22일 열리는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조계종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종회에서 불신임 결의를 받은 총무원장이라는 불명예를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어쩌면 이 같은 설정 스님의 '불신임 정국' 은 예고된 것일지 모른다. 설정 스님은 취임 직후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과정에 불거진 자신의 의혹에 대해 밝힐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하지만 10개월이 지나면서도 명확한 해명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들어 PD수첩에서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고, 설조 스님의 단식 등이 이뤄지고 나서야 설정 스님은 "마음을 비웠다.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자신의 진퇴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다가 8월 14일이 돼서야 종단 개혁을 위해 사퇴를 미루겠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명확한 해명 없이 오로지 결백만을 주장하고, 사퇴와 번복을 오간 설정 스님의 갈지(之)자 행보는 결국 종단 사부대중들에게 적지 않은 피로를 안겼다. 이는 첫 총무원장 불신임 가결이라는 결과로 귀결됐다.

조계종과 한국불교의 위상은 현재 바닥을 친 상황이다. 재가자가 승가를 조롱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승가는 재가자들을 백안시 한다. 국민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종단 안정이 필요하다. 이제 승가와 재가 모두 종단 화합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 더 이상의 갈등은 파국을 몰고 올 뿐이다.

장애인 불자 시집 후원에 관심을

장애인불자들의 신행모임인 '보리수아래' 가 지난해 미얀마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시집 〈빵 한 개와 칼 한 자루〉를 발간한데 이어 올해 베트남장애인들과 공동시집 발간에 나선다. 시집명은 〈시로 엮은 내 사랑을 받아주오〉다. 사찰의 낮은 접근성과 색안경을 끼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원활한 신행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장애불자들이 걸림돌을 극복하고, 해외 장애불자들과 문학교류를 한다는 점에서 박수 받아 마땅하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공동시집 제작에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스토리펀딩을 통한 후원금 모연이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는 최근 스토리펀딩 사이트에 '아시아장애인들의 공동시집 제작' 이란 제목으로 사연을 등록했다. 시집은 현재 번역 진행 중이며, 10인의 시 총 40편이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수록될 예정이다. 후원자들에게는 시집을 비롯해 보리수아래 서정음반, 각종 간행물들이 배송된다.

지금껏 한국불교는 사홍서원의 제1서원인 '중생무변서원도' 를 외쳐왔지만, 정작 이 서원은 장애불자들에게 잘 닿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2001년 한국갤럽이 발표한 '장애인 생활실태 및 장애인에 대한 의식조사' 에서도 불자는 7.2%에 불과해 개신교(61.5%), 가톨릭(12.6%)보다 한참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불교계가 장애불자들을 무관심으로 대해왔다는 뜻이다.

이제라도 시선을 조금만 옮겨보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내 손길, 눈길 닿는 그곳에 고군분투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장애인불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